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사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

인민은 하늘, 이것이 곧 우리의 법이다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성원들과 나눈 이야기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 적국가사회제도도 국가의 법들도 당과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 모든 활동도 철철힘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으신다.

경직적인 사변도 많았고 행복의 창조물들도 수많이 일떠선 끝은 올해가 저물어가는 얼마전 우리는 사회주의헌법절을 맞으며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소장박사 부교수 홍철화, 실장 장준식동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당장건 70돐을 맞은 끝은 올해는 우리 인민들의 북된 삶이 더욱 활짝 꽂워 한해라고 생각하는데 이 땅의 모든 행복의 법칙담보는 사회주의법이 아닌가?

소장 홍철화: 그렇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이 누리는 모든 생활은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절저히 담보되고 있다.

법은 절저히 계급적성격을 띠다. 그것은 법이 정권을 위한 계급의 국가적의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가장 큰본질적 특징은 무엇인가. 그 특징의 하나는 인민성이이다. 사회주의헌법에는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혁명과 전선에 의하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갈데 대한 주체사

상의 근본원리와 요구가 전면적으로 구현되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법률 만드는것도 인민대중이고 그것을 집행하는것도 인민대중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은 작위계급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의 리익을 절저히 실천하는데 복종되고 있다. 이로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본초적인 삶의 권리가 법적으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실장 홍철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의 인민적성격은 그 제정과정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민원천을 한생의 푸아무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후 사회주의헌법재해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그 준비사업을 추진시켜오셨다.

오늘도 새 헌법제정의 방향을 가르쳐주시고 혁명과 건설을 정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인민의 의사와 요구가 정확히 반영되고 인민의 권리가 절저히 담보하도록 사회주의헌법의 내용과 표형형식에 이르기까지 최고원칙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만 보아도 절저히 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를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우월한 헌법구성체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헌법에 밝혀진 우리 공화국의 성격과 지도사상,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은 물론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만 보아도 절저히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그들의 리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온다는 것을 잘 알수 있다.

실례로 헌법에는 남자는 와 똑같은 사회적지위와 권리도 가진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이것으로 하여 여성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어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와 가지고 국가사회생활에 참가한다. 또한 산전산후

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무한애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그 구성체계가 국가통치 기관체계위주로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국가기관체계를 위주로 서술한 헌법들은 딜리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대내외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가장 우월한 헌법구성체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자: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도 자기의 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처럼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이 절저히 구현된 헌법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것이 곧 우리의 법이라고 당당히 자부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도 자기의 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그 내용과 표형형식에 이르기까지 최고원칙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만 보아도 절저히 인민대중의 정치적권리를 여지없이 통락당하고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책임과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는 곳이라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 우리 인민처럼 절제위인들의 존함으로 및 나는 헌법을 가지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가는 인민은 없다. 고마운 제도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명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 것이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기자: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단순히 나서자란 나고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주고 끌어내리고 영원한 삶의 품성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것을 금할수 있다.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아래 날로 꽂피는 인민의 행복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선창자들 속엔 우리도 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돌불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
자들, 어린이들의 생활을 보았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여주
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국제장애자
의 날을 맞으며 김책공업종합대
학 체육관에서는 장애자들과 김
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의 예술
공연이 있었다. 대체로 운동·종목
들이 오른 이날의 공연은 우리
인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 사람
들에게 깊은 인상과 여운을 안

가슴속에 움러나는 꿈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장애자들이 어린 크나큰 혜택을
누리며 살고있던지 디는 모를것
이다. 대답을 찾기 위해 장애
자라는 부름과 함께 물려우는
이름들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자 한다.

장애자보호법, 장애자보호
법, 장애자학교, 장애자예술
회, 장애자예술공연, 장애자의
날, 장애자동로, 장애자짜스,
장애자탈시설...

이렇듯 꿈기기도 아름찬 장애
자들을 위한 수많은 시설들과
조선들이 사회주의의 우리나라에
총분히 갖추어져있다.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67년전인
1948년 2월에 벌써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자들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
애자보호법 제2장 제14조에
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
관, 기초인구교정기구, 산통
부, 안경, 보청기, 자전거 같은
장애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매일마다 울리군 하는
우리 젊은이 종소리가
요즘은 폐사 **단상**
음계만 들려오지 않는다.

한 번 걸을 때

며칠 앞둔 날 저녁에도
초인종소리가 울렸다.

출입문을 열어보니 낮익은
동사무소일군이 서있는
것이었다.

그는 인사말을 나눈 다음
『물이 잘 나옵니까?』하고 물었다.
어서 들어와 보라고 하면서 우리
집식구들은 세면장에 그를 이끌
기도 하였다. 그제서야 만족한
웃음을 짓으며 일군을 돌아갔다.

그가 찾아온 사연을
우리는 그후에 인민반장
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토록 마음쓰고 계시는 인민
의 생활보장을 위해 저
렇게 구역과 동의 일군들

장애자들의 행복에

겨우 있다.

단 한점의 그늘도 없는 밝은
얼굴에 웃음을 험뿍 담고 공연에
출연한 장애자들의 모습을 보았
다면 누구든지 관람자들과 똑같
은 심정을 금치 못하였을 것이다.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조국찬가』의 장중한 노래
가 더욱 의미깊게 울려퍼진 이날
의 공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느낀 것은 파연 무엇이었는가.

생산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장애자의 보조기구수요를 제때
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보조기구는 쓰기 편리하게
설계하고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장애자들의 편의와 인격을
존중하는 뜨거운 사랑이 맥백히
흐르는 이 국가적 조치는 이미
불비쏟아지는 전화의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
렬한 결전장에서 그 무트보다
질질히 필요로되는 것은 총파탄
포탄이었다. 한개의 군수공
장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로하는
한은 1951년에 우리 나라에서
는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손길아래 불구가 된 사람들을
처진 행복의 열매들은 결코 무
심히 볼수 없는 숭고한 사랑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위대한장군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주제87(1998)년에
조직된 조선장애자보호법
장애자들의 수령님의 정파로
그대로 끝에도 우리 장애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오늘날 누구보다 더
많이 받고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름이 아닌 우리 장애자들일
것이다.

우리는 자주 장애자들이 어느
사람들과 꽃같이 재봉피리밥도
여러 가지 세우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부름이 아니라 예술
인으로, 세우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힘으로 되고 있다.

이번 국제장애인의 날에 즈음
한 공연을 본 주조 유엔아동
기금 대표는 『사회에 이미지 할
열정에 넘친 젊은이들의 훌륭한
모습을 보니 악동하는 조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흥분
된 심정을 더놓았다.

어찌 그뿐인가 2012년
런던장애인자율권경기대회에
우리나라 장애자체육선수가
참가하였으며 제3차 아시아청
년장애인경기대회에서도 우리

온 나라 가정들에 뜻밖의
정이 넘치고 퀴어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며 떠나왔다.

동일군이 승강기를 주자
타길 때 우리 아빠에
이사를 한가보다 했는데
우리원민을 위한

『현신의 길을
걸고걸으시는
우리 원수님.』

명도자와의
그 위대한 현신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일군
들도 인민을 위해 멀사
복무하는 사회, 나날이 활
짝 꽂펴나는 만복의 주인이
여기에는 일군들의 모습을
볼 때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세워
주시고 빛내여 주신 우리
수령님 생각, 우리 장군님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사회주의
제도가 얼마나 좋은가
우리나라에 주인인 민족
민족민족으로서는 끝까지
나를 높여온 행복의
파도소리가 저 종소리에
가득 실려와 쉬어 잠들수
없는 밤이었다.

그때 예사롭지 않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토록 마음쓰고 계시는 인민
의 생활보장을 위해 저
렇게 구역과 동의 일군들

를 토해하기 위해 매일이
다실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
사랑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저렇게 밤도 낮도 뛰어
나타나는 일군들의 모습을
볼 때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세워
주시고 빛내여 주신 우리
수령님 생각, 우리 장군님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사회주의
제도가 얼마나 좋은가
우리나라에 주인인 민족
민족민족으로서는 끝까지
나를 높여온 행복의
파도소리가 저 종소리에
가득 실려와 쉬어 잠들수
없는 밤이었다.

그때 예사롭지 않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토록 마음쓰고 계시는 인민
의 생활보장을 위해 저
렇게 구역과 동의 일군들

를 토해하기 위해 매일이
다실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
사랑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저렇게 밤도 낮도 뛰어
나타나는 일군들의 모습을
볼 때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세워
주시고 빛내여 주신 우리
수령님 생각, 우리 장군님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사회주의
제도가 얼마나 좋은가
우리나라에 주인인 민족
민족민족으로서는 끝까지
나를 높여온 행복의
파도소리가 저 종소리에
가득 실려와 쉬어 잠들수
없는 밤이었다.

그때 예사롭지 않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토록 마음쓰고 계시는 인민
의 생활보장을 위해 저
렇게 구역과 동의 일군들

를 토해하기 위해 매일이
다실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
사랑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저렇게 밤도 낮도 뛰어
나타나는 일군들의 모습을
볼 때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세워
주시고 빛내여 주신 우리
수령님 생각, 우리 장군님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사회주의
제도가 얼마나 좋은가
우리나라에 주인인 민족
민족민족으로서는 끝까지
나를 높여온 행복의
파도소리가 저 종소리에
가득 실려와 쉬어 잠들수
없는 밤이었다.

그때 예사롭지 않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토록 마음쓰고 계시는 인민
의 생활보장을 위해 저
렇게 구역과 동의 일군들

를 토해하기 위해 매일이
다실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
사랑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저렇게 밤도 낮도 뛰어
나타나는 일군들의 모습을
볼 때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세워
주시고 빛내여 주신 우리
수령님 생각, 우리 장군님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사회주의
제도가 얼마나 좋은가
우리나라에 주인인 민족
민족민족으로서는 끝까지
나를 높여온 행복의
파도소리가 저 종소리에
가득 실려와 쉬어 잠들수
없는 밤이었다.

그때 예사롭지 않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토록 마음쓰고 계시는 인민
의 생활보장을 위해 저
렇게 구역과 동의 일군들

를 토해하기 위해 매일이
다실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
사랑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저렇게 밤도 낮도 뛰어
나타나는 일군들의 모습을
볼 때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세워
주시고 빛내여 주신 우리
수령님 생각, 우리 장군님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사회주의
제도가 얼마나 좋은가
우리나라에 주인인 민족
민족민족으로서는 끝까지
나를 높여온 행복의
파도소리가 저 종소리에
가득 실려와 쉬어 잠들수
없는 밤이었다.

그때 예사롭지 않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토록 마음쓰고 계시는 인민
의 생활보장을 위해 저
렇게 구역과 동의 일군들

를 토해하기 위해 매일이
다실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
사랑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저렇게 밤도 낮도 뛰어
나타나는 일군들의 모습을
볼 때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세워
주시고 빛내여 주신 우리
수령님 생각, 우리 장군님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사회주의
제도가 얼마나 좋은가
우리나라에 주인인 민족
민족민족으로서는 끝까지
나를 높여온 행복의
파도소리가 저 종소리에
가득 실려와 쉬어 잠들수
없는 밤이었다.

그때 예사롭지 않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
토록 마음쓰고 계시는 인민
의 생활보장을 위해 저
렇게 구역과 동의 일군들

를 토해하기 위해 매일이
다실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념친 모습을 보고

로써 그들이 다양한 업종의
로 생산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하여
장애자의 보조기구수요를 제때
에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고마운 사회주의의 품속
에서 우리 장애자들도 세상에
부럽없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
려는 것이 바로 어머니 우리 당
의 뜻이다.

그 뜨거운 정파 사랑은 그대
로 장애자들의 건강증진에 도

우지 않겠는가.

위대한 품이 있어 우리들의
행복과 최답은 풀려난다. 우리
도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이 고마운 제도를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

고마운 사회주의의 품속
에서 우리 장애자들도 세상에
부럽없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
려는 것이 바로 어머니 우리 당
의 뜻이다.

그 뜨거운 정파 사랑은 그대
로 장애자들의 건강증진에 도

글자들을 보고

우리 나라처럼 인민이 주인으로
된 사회, 인민의 의뢰를 최우선
으로 하는 환경을 향남공

업대학 교원 한철준동우가 보내
온 환경의 편지가 날아왔다.

『…저는 지난 10월
제 8차 전국대학과학연구성
과 페스티벌 참가하기 위해
평양시에 갔습니다. 그때
수도의 곳곳에 풀려진
인민사랑의 장조들을 돌아
보게 되었는데 정말 감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신으로 한 희열이 사랑하고
행복을 안겨주고 광휘로운
세상을 그려보고자 했던
우리 장애자들의 행복과 희망
을 위하여 헌신하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 인민은 오늘
의 존엄과 행복뿐 아니라 회
망과 미래까지도 다 맡아간
인민으로서는 이 편지에 담
긴 열렬한 사랑과 희망의 고
마운 제도를 천명합니다.』

우리 장애자들의 행복과 희망
에 넘친 생활은 우리 제도가 얼
마나 우월하고 인민을 위해 바
쳐지는 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한 대학교원
의 심장의 토로가 담긴 희망
을 가진다. 한방약의 물에 온
주가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자들은 가요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제일
사랑하는 부름이 아니라 예술
인으로 세우는 내세워주고
다름은 뜨겁게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자들은 가요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제일
사랑하는 부름이 아니라 예술
인으로 세우는 내세워주고
다름은 뜨겁게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자들은 가요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제일
사랑하는 부름이 아니라 예술
인으로 세우는 내세워주고
다름은 뜨겁게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자들은 가요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제일
사랑하는 부름이 아니라 예술
인으로 세우는 내세워주고
다름은 뜨겁게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자들은 가요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제일
사랑하는 부름이 아니라 예술
인으로 세우는 내세워주고
다름은 뜨겁게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자들은 가요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제일
사랑하는 부름이 아니라 예술
인으로 세우는 내세워주고
다름은 뜨겁게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자들은 가요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제일
사랑하는 부름이 아니라 예술
인으로 세우는 내세워주고
다름은 뜨겁게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자들은 가요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제일
사랑하는 부름이 아니라 예술
인으로 세우는 내세워주고

2015년 남조선 인권 유린 조사 통보

남

조선인권대책회

협회

올해에도 남조선에서는 세인을 경악케 하는 참혹한 인권유린 사들이 벤이어 빛어져 온 민족과 국제 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었다. 남조선 인권대책회는 투등

1. 미제의 생화학전 도발작 동에 적극 추종한 특급 범죄

생화학무기는 반인륜적인 대량살상무기인 것으로 하여 국제법으로 그 사용자들을 엄중한 범죄자로 규정하고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쓰개짜진 친미보수당국은 지난 5월 27일 미국이 남조선 강점 미군의 탄저균불법반입 행위에 대한 기만적인 공개발음을 벌리었을 때 판권 사실을 미군측으로부터 사전통보방지법을 제외하고는 단전을 피우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하였다.

그리고 탄자균표본실질 및 혼련을 통해 오산미공군기지에서 처음 전쟁하였다. 탄자균과 다른 독성물질은 들여오지 않았다는 상전의 말을 풀어워드는가 하면 «다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군측이 관심을 돌려주기 바란다»는 귀족들은 말로 상전의 비위를 맞추는 추세까지 부리었다.

미국 방성이 7월 23일 탄자균 불법반입 사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원인을 알수 없고 책임질 주제도 확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을 때도 상전에게 미루루 항의도, 주

2. 말세기적인 파쇼광란 -《종북》소동

남조선에서는 정초부터 온 한 해 동족대결에 환장한 보수집권 세력이 물어온 «종북» 광풍으로 인권침해의 살풍경이 펼쳐졌다. 지난 1월 10일 남조선공안당국은 우리 공화국을 친양하는 소감발표임을 가졌다며 머무니없는 «종북과 친구를 위한 종북» 광풍으로 인증을 강제 추방시켰으며 온 한 해 최장치연구포럼 대포 활선에 대한 탄압소동을 벌리다가 끝내 그에게 파쇼적형벌을 들은 우리는 아단족기를 강행하였다.

3월 5일 서울에서 미국대사 정벌사건이 일어나자 보수당국은 남조선주민 김기종의 의로운 행동을 «례로»로 몰아대지 못해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대대적인 «종북» 물이, «마녀사냥»에 미쳐 날뛰었다.

종동을 행각중이며 남조선집권자는 사건당일 무작정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수출에 물려온 남조선에게 정의형을 구형하고 끌더기로 기소하는 등 징계로 서슴지 않았다. 온 힘으로 남조선에게 물어친 «종북»의 미친 바람은 현 보수집권 세력이 아말로 극악한 파쇼광신자, 회의 민주교사, 안동일원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

3. 세계 최악의

이전 지옥보다 더 나쁘다. 저우에선 지옥이 있다고 말할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우에 살면서 천국에 사는 것처럼 신문을 만들라고 한다. 비판적조언에 자갈을 물리는 박근혜(정권)에 대하여 신독재시대에 사는 언론인이 이어, 이제 그만 깨어나라.»

이 것은 서울에서 열린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41

인권법률자들의 극악무도한 반인권적, 반인류적범죄를 존렬히 단죄 규탄하는 운 거래와 인류의 저주를 달아 현 보수집권세력이 2015년에 저지른 인권유린죄상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2015년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온 『자주민보』의 합법적인 활동을 «종북체제»나, «리적 행위»나 하고 걸고들며 이 언론사판제자들을 구속처형하고 갖은 박해를 가하던 끝에 『자주민보』자체를 강제폐간킨 것은 『유신』독재를 점령해낸 듯 하나의 국악한 파쑈적횡포이다.

10월 26일 보수집권세력은 공영방송기판인 『KBS』의 사장후보로 지난 시기 『정권』면 표보도를 하는데 앞장서온 고대영이라는 인물을 선정한데 이어 문화방송인 『MBC』, 교육방송인 『EBS』 등 주요방송사의 의료직원에 악질보수문자를 비롯한 저들의 앞잡이들을 끌어 않았다.

11월 3일에는 인터넷온론을 내오는 경우 편집방향과 책임자를 무조건 밝혀야 한다는 것을 기분으로 하여 『신문법시행령개정안』을 『국회』에서 강압통파시킨 『정부』를 비난하는 인터넷글

들을 일제 쓰지 못하게 막는가 하면 21일에는 모든 방송사들의 보도내용에 대한 접수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방송평가규칙개정안»을 조작하여 방송사들이 청수 186명, 사장자수 38명, 경리 대상자수 1만 6,000명여정을 발생시켰으며 지금도 원인모를 흥행기획들이 제작되어 사회적불안에 없도록 만들어놓았다.

또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신문사들에 『정부』광고비 지출을 늘이는 등 특혜조치를 위해 주어 보수당국의 어용나팔수로 뜻을 더 잘하도록 부추기였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 『언론에 대한 공권력량용이 무차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과거 전두환『정권』도 유포한 독재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국제인권단체들과 국제연합감시단체들이 남조선에서의 언론자유를 세계최악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4. 물대포와 폭성최루액 까지 동원한 평화적 시위 진압 막만행

파쑈의 런투장, 인권의 암흑지대인 남조선에서는 생존권과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평화집회와 시위들이 보수당국의 살인적인 물대포와 폭성최루액의 사용에 의해 무참히 진압당하는 꼭두둑한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월 18일과 24일, 5월 1일 경찰당국이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에 나선 각계 주민들에게 쓰아낸 물대포로 시위를 끌어내리며 물대포 사용은 7만 9 000여에 달하였다.

5월 1일 하루밤에만 2011년 11월 22일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여 투쟁에 참여한 시위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리미박의 적폐당이 사용한 2만 4 800여근 물대포를 쏘아냈다.

또한 4월 11일과 16일, 18일, 24일, 5월 1일에 살포한 물대포로 물대포 사용은 700여에서 지난해 물대포 사용량의 3.7배에 달하였다.

그러고도 성차지 않아 그를 구원하려는 시민들에게도 직접 조준으로 물대포를 쏘아내는 살인적인 진압행위를 강행하였다.

이날 하루동안 파쑈경찰이 평화적 시위자들에게 쓰아낸 물대포 사용량은 18만 2 000여, 독성최루액 사용량은 440여L였으며 4 800여근 물대포를 쏘아냈다.

그리고 4월 11일과 16일, 18일, 24일, 5월 1일에 살포한 물대포로 물대포 사용은 700여에서 지난해 물대포 사용량의 3.7배에 달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최루액을 얼마나 사용하였는지 하얀색의 물이 도로에 고이 날날이 퍼트려주고 있다.

5. 아비규환의 레르스 사태

국제 인권협약에는 사람이 육체적 및 정신적건강을 보호받을 권리가 가지며 국가들이 그 보장책을 허 할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인증도 없는 남조선당국은 방역체계 제대로 세우지 않은 17명이나 되었으며 여전히 공안당국과 『세우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종북』을 향한 폭수세력을 드러내놓은 광경이다.

온 힘으로 남조선에게 물어친 «종북»의 미친 바람은 현 보수집권 세력이 아말로 극악한 파쇼광신자, 회의 민주교사, 안동일원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

언론란 압박을 당하고 북남판에게

3. 세계 최악의

이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물론 초보적인 인권파, 생존권 등을 요구하는 무고한 인민들까지 『종북』으로 물려 무차별적인

그자체를 부정한것이나 다를바 없다.

6. 1.5 광동선언은 북남수뇌분들이 직접 합의하고 서명발표한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그런데 대법장판에 불과 한 홍용표 디파워가 감히 북남수뇌분들이 발표한 6. 1.5 광동선언에 대해 함부로 시내에 아비마에 악당질을 하여 그나마 대법장을 허 할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인증도 없는 남조선당국은 방역체계 제대로 세우지 않은 17명이나 되었으며 여전히 공안당국과 『세우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종북』을 향한 폭수세력을 드러내놓은 광경이다.

온 힘으로 남조선에게 물어친 «종북»의 미친 바람은 현 보수집권 세력이 아말로 극악한 파쇼광신자, 회의 민주교사, 안동일원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

언론란 압박을 당하고 북남판에게

4. 세계 최악의

이전 지옥보다 더 나쁘다. 저우에선 지옥이 있다고 말할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우에 살면서 천국에 사는 것처럼 신문을 만들라고 한다. 비판적조언에 자갈을 물리는 박근혜(정권)에 대하여 신독재시대에 사는 언론인이 이어, 이제 그만 깨어나라.»

이 것은 서울에서 열린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41

그자체를 부정한것이나 다를바 없다.

6. 1.5 광동선언은 북남수뇌분들이 직접 합의하고 서명발표한 최고의 지위를 가지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그런데 대법장판에 불과 한 홍용표 디파워가 감히 북남수뇌분들이 발표한 6. 1.5 광동선언에 대해 함부로 시내에 아비마에 악당질을 하여 그나마 대법장을 허 할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인증도 없는 남조선당국은 방역체계 제대로 세우지 않은 17명이나 되었으며 여전히 공안당국과 『세우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종북』을 향한 폭수세력을 드러내놓은 광경이다.

온 힘으로 남조선에게 물어친 «종북»의 미친 바람은 현 보수집권 세력이 아말로 극악한 파쇼광신자, 회의 민주교사, 안동일원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

언론란 압박을 당하고 북남판에게

5. 아비규환의 레르스 사태

국제 인권협약에는 사람이 육체적 및 정신적건강을 보호받을 권리가 가지며 국가들이 그 보장책을 허 할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인증도 없는 남조선당국은 방역체계 제대로 세우지 않은 17명이나 되었으며 여전히 공안당국과 『세우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종북』을 향한 폭수세력을 드러내놓은 광경이다.

온 힘으로 남조선에게 물어친 «종북»의 미친 바람은 현 보수집권 세력이 아말로 극악한 파쇼광신자, 회의 민주교사, 안동일원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

언론란 압박을 당하고 북남판에게

6. 1.5 광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가 집중적으로 밝혀져있어 제2항을

북남판에게서는 민족족적인 『제체통일』과

남조선당국자들이 그런 시기에는 농민족족인 『제체통일』과